11돌 쿠무다, '문화·예술 전법' 새 장 열다

쿠무다 콘서트홀서 11주년 기념식
수불 스님, '육조단경 강설' 회향
대불련 공모전 시상식 상장 수여해
한국심장재단에 1000만원 자비나눔
이승기 출연 축하무대 피날레 장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송정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쿠무다 개원 11주년 및 명경문화재단 3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주석 스님이 개회사를 전하는 모습.

"문화와 예술로 전법의 꽃을 피워온 쿠무다의 11주년을 축하합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는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송정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쿠무다 개원 11주년 및 명경문화재단 3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기념식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전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하림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동학사 주지 경원 스님, 법주사 수정암 성정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사부대중은 새로운 문화포교의 가능성을 보여준 쿠무다와 이사장 주석 스님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념행사는 수불 스님의 '육조단경 강설' 회향 법회로 시작됐다. 수불 스님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10개월 동안 〈육조단경〉을 강설했다. 회향식에 이어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환영사, 인사말, 치사, 축사, 경과보고, 대불련 공모전 시상식, 사홍서원,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오늘 육조단경 강설 회향이 더해져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 해 동안 법석을 이끌어 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11주년을 맞은 쿠무다가 있기 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도량이 늘어나고 부처님 법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는 치사를 통해 "주석 스님은 불교 문화 예술의 혼을 담아 미래세대를 위해 쿠무다를 세웠다"며 "앞으로 더 큰 일을 해 낼 것이라고 믿으며 불교문화예술 콘텐츠가 하얀 연꽃으로 아름답게 피워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행사는 명경문화재단과 쿠무다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기획한 '제1회 한국불교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위한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은 곽다훈(전남대, 마음쉬는 곳), 최우수상은 정선아(서울여대, 불교학생회 세주), 우수상은 남형철(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오태중(전북대, 불교학생회), 유정현(동국대, 동불)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쿠무다는 한국심장재단에 치료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심장병으로 힘겨운 환아에게 희망을 전했다. 기념식 후에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축하 무대를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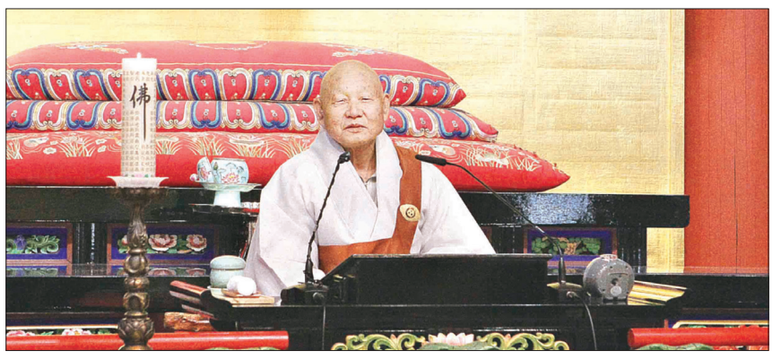
쿠무다는 경남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해 부산 달맞이 언덕을 거쳐 송정에서 전법의 여정을 이어오고 있으며, 조계종 대운사를 뿌리로 둔 문화예술사단법인이다. 대운사가 법회와 기도 등 신행 생활을 오롯하게 체험할 수 있는 법향(法香) 가득한 기도 도량이라면, 2013년 부산 송정 해수욕장 뒤 아담한 베이커리 북카페로 시작한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현대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불교와 현대사회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을 뜻하는 '쿠무다'는 북콘서트, 전시회,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문화예술 분야 인재양성 후원사업 등 복합문화공간에서 쌓아 온 문화포교 노하우를 바탕으로 3년 가까운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12월 9일 쿠무다 명상문화센터를 세상에 드러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명경문화재단을 설립해 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일반인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또 송정 대운사를 통해 기도와 신행의 장을 펼치며 전법과 포교의 장도 확장해 가고 있다. 이 같은 원력행으로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올해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 '2024 슈퍼스타종로 국회의장 공로장' 등을 수상했다.

한편, 쿠무다는 12월 1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로터스 봉사단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쿠무다 부설 로터스 봉사단 창단 기념 사무소 현판식 및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로터스 봉사단'은 앞으로 쿠무다 인근 지역 내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기지로 활동한다. 봉사단은 독거 어르신과 결손 가정 등 송정동 108세대에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격주 1회 배달한다. 밑반찬 전달은 다음해 1월부터 시작하며 3월 부터는 주 1회로 확장한다. 아울러 무료급식 및 새해 첫날 떡국 나눔도 추진 중이다. 쿠무다는 현재 봉사단원 50명을 구성, 활동 시작을 알렸으며 봉사자 및 후원자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30일 대장정 회향

12월 30일 회향법회 봉행해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추모



통도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설법전에서 '불기 2568년 화엄산림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한 달간 이어온 화엄산림의 대장정을 원만 회향했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지난해 12월 30일 설법전에서 '불기 2568년 화엄산림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회향 법어, 체육인 불자 장학금 전달, 인사말, 영단 참배, 위패 봉송 순으로 봉행됐다.

회향을 맞아 수행정진을 독려하는 종정 성파 대종사의 법문에 불자들은 연이어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성파 대종사는 "한 달 동안 화엄산림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량하고 맑음이 가득할 것이다. 많은 법사스님들의 법문을 잘 듣고 새겨 무엇보다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 "우주 최고의 산림이 화엄이다. 우주를 경영하는 것이며 우주는 각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개인의 마음을 잘 살아 경영하면 가정과 사회가 평화롭게 된다. 우주가 나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법문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현재 국가 애도 기간이다. 오늘 화엄산림회향법회에 동참한 여러 불자들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희생된 고인의 왕생극락을 함께 빌고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화엄산림법회 회향을 맞아 경남도체육인불자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고성여자중학교 곽도영 학생 외 9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BS불교방송 부산, 신임 사장 원허 스님 선임

제2차 운영위원회서 만장일치로


BBS불교방송 부산(이하 BBS부산) 신임 사장에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BBS부산은 지난해 12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관 2층에서 '2024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원허 스님을 신임 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BBS부산 신임 사장 원허 스님의 임기는 12월 24일부터 4년간이다.

이번 BBS부산 사장 선출은 지난 12월 17일 BBS불교방송 신임 이사장에 수불 스님(전 BBS불교방송 부산)이 선임됨에 따른 후속 인사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국제종교연합 창립

12월 30일 부산시청서 창립총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연합 활동
초대 이사장에 정여 대종사 추대



국제종교연합이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제종교연합(이사장 정여 대종사)이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제종교연합은 남북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종교연합 단체이다.

창립총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영령들을 애도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도의식에 동참했다.

이날 임원선거를 통해 초대이사장에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상임고문 김계춘 국가원로회 원로 신부, 상임회장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임영문 전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신요한 안락성당 주임신부가 선임됐으며, 운영위원장에는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추대됐다.

국제종교연합 초대이사장 정여 대종사는 "며칠 전 안타까운 참사 소식에 모든 국민들이 슬픔과 아픔에 휩싸여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며 소중한 그분들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할 수 있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드린다"고 추모했다.

이어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있다. 지금 이때 종교간 화합이 소중하고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평화를 이끌어가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종교연합은 종교간 평화를 위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며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세아향(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토크'에서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세상에 수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손가락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그 손가락을 한곳으로 모아 주먹을 불끈 쥘 때 힘이 있는 것처럼 종교간 화합을 이루며 세계는 한송이 큰 꽃이라는 세계일화(世界一花)처럼 나라도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화엄승가회·부산불교교육대학 자비나눔

사상구청에 라면 700박스 전달
취약계층 700세대에 지원 예정



자비나눔공동체 화엄승가회(회장 자인 스님)와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가 연말연시를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화엄승가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사상구청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라면 700박스(8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사진〉 성품은 사상구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7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자비나눔은 화엄승가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매년 실시하는 '살기좋은 부산 만들기 연말 이웃돕기' 일환으로 마련됐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자비 나눔 실천으로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며 따뜻한 온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살기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으로 매년 연말마다 진행해온 나눔이다. 봄에는 부산시목 동백나무 묘목 3000그루 나눔을 진행했고 이어 사상구 지역 취약계층에 라면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올해 연말은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혼란해 시민들의 마음이 더욱 어둡다. 따뜻한 공양으로 마음을 녹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소중한 나눔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사업 활성화로 모두가 힘나고 행복한 사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락서암, 제6회 장학금 전달식

총 21명에 1450만원 전달



청소년 학생들의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 대신동 락서암(주지 수월 스님)이 지난해 12월 27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6회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 무형문화재 영남범패 교수사 성림 스님, 지우 스님, 성담 스님, 성암 스님, 춘제 스님, 보광 스님, 보덕 스님, 선혜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학생 6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5명에게 각 30만원을 전달해 총 21명에게 장학금 1450만원을 전달됐다.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은 "오늘 학생들을 만나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자 오늘을 위해 열심히 잘 살아서 부처님께도 감사한 마음이다"며 "인재불사는 정성을 모아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장학금 마련을 위해 정성을 모아 후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읽어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락서암은 2019년부터 매년 종교에 관계없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장학금 인재불사를 위해 신도들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한빛마음회 후원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늘어 의미가 깊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상경찰서경승단, 장학금·자비물품 전달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과 함께


사상경찰서경승단(단장 성문 스님)과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회장 심인택)는 인재불사와 자비물품을 전달하며 추운 겨울에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와 사상경찰서경승단은 지난해 12월 26일 감전제일새마을금고 4층 대강당에서 장학금 및 자비물품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사상경찰서경승단 실장 성문 스님과 총무국장 자륜 스님, 은적 스님, 심인택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강용창 부산경찰청불자회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이종구 사상구의회의장, 윤태한·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숙희 사상구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봉행사 △장학금수여 △격려사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김지현(덕포여중 1) 학생 외 초·중·고·대학생 총 32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960만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또 힘든 겨울을 지내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비물품 라면 100박스도 함께 전했다.

경승단 실장 성문 스님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으로 어떻게 갈고 다듬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무한히 바뀔 수 있다. 무한한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보석이 되시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심인택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장은 "오늘 장학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게 우선 축하의 말을 전한다.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잘 성장해주길 기대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학생들과 이웃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시니 사상구가 더욱 사람사는 도시가 되는 것 같다. 보내주신 성품은 두루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와 사상구경찰서경승단은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불사를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물품을 전하며 부처님의 자비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